

2019년 4월 11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낙관적인 전망속에 상승세 유지 경기 둔화 이슈 부각 불구 2분기 경기 바닥론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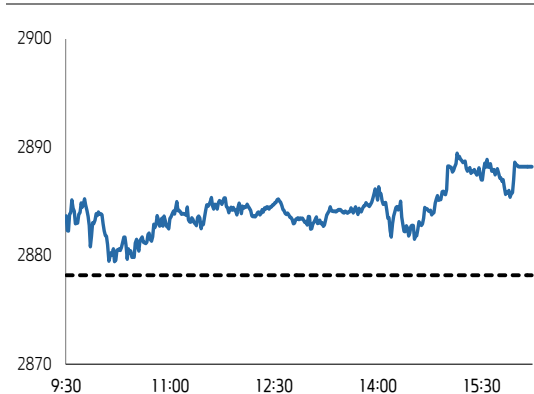
### 미 증시 변화요인: ①드라기 ECB 총재 ②미-중 무역협상 ③FOMC 의사록

미 증시는 드라기 ECB 총재가 일부 긍정적인 발언과 미-중 무역협상 관련 므누신 장관의 긍정적인 발언에 힘입어 장중 상승세를 이어감. 다만, 연준의 FOMC 의사록 공개 이후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며 일시적으로 매물 출회되며 상승분 반납하기도 했음. 한편, 대형 은행 CEO 들의 하원 청문회 이후 금융주가 강세로 전환하는 등 개별 기업들의 움직임 속에 상승세는 이어감(다우 +0.03%, 나스닥 +0.69%, S&P500 +0.35%, 러셀 2000 +1.40%)

미 증시는 ①드라기 ECB 총재 발언 ②미-중 무역협상 ③FOMC 의사록 공개 영향으로 변화. 먼저 ECB 통화정책 이후 드라기 ECB 총재가 여전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 했으나, 과거와 달리 “일부 성장에 악영향을 주던 특정 요인들이 사라지고 있다”, “TLTRO 가 우호적인 대출환경에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며 부정적인 요인을 완화. 한편,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전일 중국과 무역 협상 합의 이행 매커니즘에 많은 부분 진전이 있었다” 라고 언급. 이와 더불어 화상통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중국과의 협상은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 이러한 므누신 장관의 발언에 따른 낙관적인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도 투자심리 개선 요인.

연준은 FOMC 의사록 공개를 통해 3 월 금리 전망 하향 조정 요인에 대해 ‘성장을 둔화’가 컸다고 지적. 연준은 “고용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가계지출, 고정 투자 감소로 올해 초 성장이 둔화 되었다” 라며 불확실성을 언급. 많은 위원들은 이러한 경제전망에 대한 우려로 올해 금리 동결을 주장. 이들 중 일부는 현재 범위가 장기 중립 금리 수준이라고도 주장했으며, 일부 위원들은 미-중 무역협상과 브렉시트를 포함한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주장. 관련 내용이 알려진 이후 일시적으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기도 하는 등 변화를 보임. 다만 연준이 “1 분기 경기 둔화는 일시적이며 2 분기에는 견고함을 이어갈 것” 이라고 주장한 점은 긍정적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224.39	+0.49	홍콩恒生	30,119.56	-0.13
KOSDAQ	760.15	+0.44	영국	7,421.91	-0.05
DOW	26,157.16	+0.03	독일	11,905.91	+0.47
NASDAQ	7,964.24	+0.69	프랑스	5,449.88	+0.25
S&P 500	2,888.21	+0.35	스페인	9,406.50	-0.01
상하이종합	3,241.93	+0.07	그리스	755.53	+0.31
일본	21,687.57	-0.53	이탈리아	21,671.76	-0.0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자동차, 반도체 업종 강세

델타에어라인(+1.60%)는 양호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 상승 했다. 산업장비 유통회사인 MSC 산업(-2.52%)은 부정적인 실적 발표 여파로 급락 했다. 베드베스앤 비온드(+5.09%)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 유입되며 급등했으며 장 마감 후에도 강력한 실적 발표로 시간 외로 7% 넘게 급등 중이다. 애플(+0.56%)은 HSBC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자 하락 출발 했으나, 장 후반 무역협상 기대에 힘입어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 했다.

마이크론(+1.08%)을 비롯한 반도체 업종은 미-중 무역협상 낙관론이 유입되며 강세를 보였다. 캐터필라(+0.87%) 등 기계업종을 비롯해 GM(+1.00%), 포드(+1.30%) 등 자동차 업종도 동반 상승 했다. 씨티그룹(+0.49%), JP모건(+0.45%) 등 7개 대형 은행 CEO가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에 출석해 소비자 보호에 대한 증언이 있었다. 초반에는 비용 부담 등 부정적인 요인이 많았으나, 시간이 지나며 “금융위기 이전보다 안전해졌다” 라고 주장하자 반등에 성공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47%	대형 가치주 ETF(IVE)	+0.33%
에너지섹터 ETF(OIH)	+0.67%	중형 가치주 ETF(IWS)	+0.69%
소매업체 ETF(XRT)	+1.47%	소형 가치주 ETF(IWN)	+1.30%
금융섹터 ETF(XLF)	+0.30%	대형 성장주 ETF(VUG)	+0.47%
기술섹터 ETF(XLK)	+0.70%	중형 성장주 ETF(IWP)	+0.66%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12%	소형 성장주 ETF(IWO)	+1.43%
인터넷업체 ETF(FDN)	+0.61%	배당주 ETF(DVY)	+0.12%
리츠업체 ETF(XLRE)	+0.80%	신흥국 고배당 ETF(DEM)	+0.74%
주택건설업체 ETF(XHB)	+0.98%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37%
바이오섹터 ETF(IBB)	+1.10%	미국 국채 ETF(IEF)	+0.24%
헬스케어 ETF(XLV)	+0.03%	하이일드 ETF(JNK)	+0.36%
곡물 ETF(DBA)	+0.30%	물가연동채 ETF(TIP)	+0.36%
반도체 ETF(SMH)	+0.81%	Long/short ETF(BTAL)	-0.4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98.51	+0.42%	+2.17%	+2.79%
소재	359.27	-0.03%	+0.19%	+2.82%
산업재	637.15	-0.01%	-0.96%	+1.45%
경기소비재	929.98	+0.49%	+1.31%	+6.75%
필수소비재	577.51	+0.32%	+1.24%	+2.05%
헬스케어	1,062.35	+0.13%	+0.18%	-0.05%
금융	439.65	+0.34%	+0.18%	+0.39%
IT	1,340.00	+0.70%	+0.57%	+6.04%
커뮤니케이션	162.61	+0.30%	+0.87%	+2.16%
유틸리티	292.22	-0.38%	-0.24%	-0.75%
부동산	226.26	+0.73%	+0.38%	+2.4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에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0.75% MSCI 신흥 지수 ETF 도 0.47%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1,515 계약) 여파로 0.25pt 하락한 288.9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36.9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증시는 옵션만기일이라는 점을 감안 외국인 선물 매매동향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낙관적인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 글로벌 2 분기 경기 바닥론 등이 유입된 점은 투자심리 개선 가능성을 높인다. 더불어 국제유가가 가솔린 재고 감소와 OPEC 산유량 감소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간 점,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점 등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글로벌 증시가 관련된 내용이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폭이 제한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련 내용은 많은 부분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제한적인 움직임 속에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 둔화

3 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4% 상승 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치(mom +0.2%)나 예상치(mom +0.3%)를 상회한 수치다. 전년 대비로도 1.9% 상승했다. 한편,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전년 대비 2.0% 상승으로 지난달 발표치를 하회했다.

2 월 영국 산업생산은 지난달 발표치(mom +0.7%)보다는 낮았으나 예상치(mom +0.1%)는 상회한 전월 대비 0.6% 상승으로 발표되었다. 특히 제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9% 증가한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국제유가 상승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재고가 703 만 배럴 증가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상승 했다. 가솔린 재고가 771 만 배럴 감소해 드라이빙 시즌 소비 증가 기대감을 높인데 힘입은 것으로 추정한다. 더불어 OPEC 은 원유시장 보고서를 통해 사우디가 하루 32.4 만 배럴, 베너수엘라가 하루 28.9 만 배럴 감소하는 등 OPEC 산유량이 감소를 이어간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가솔린 가격이 재고 감소를 기반으로 3.5% 급등 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 드라이빙 시즌에서 수요 둔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달러화는 장시작 전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자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되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더불어 연준이 FOMC 의사록 공개를 통해 금리 동결 의지의 견고함을 보인 점도 약세 요인 중 하나였다.

국채금리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둔화 및 연준의 금리 동결 의지 표명 여파로 하락 했다. FOMC 의사록 공개를 통해 연준위원들의 대부분이 금리 수준을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동의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10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율이 12 개월 평균(2.50 배)를 상회한 2.55 배를 기록했으며 간접 입찰도 12 개월 평균(62.5%)를 상회한 68.4%를 기록하는 등 국채수요 증가도 금리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금은 달러 약세 영향으로 상승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도 달러 약세 및 미-중 무역협상 낙관론에 도 불구하고 혼조 마감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31% 철근도 0.45% 상승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64.61	+0.98	+3.44	Dollar Index	96.935	-0.07	-0.16
브렌트유	71.73	+1.59	+3.49	EUR/USD	1.1272	+0.08	+0.35
금	1,313.90	+0.43	+1.44	USD/JPY	111	-0.13	-0.44
은	15.244	+0.22	+0.94	GBP/USD	1.3091	+0.30	-0.51
알루미늄	1,864.00	-0.75	-1.69	USD/CHF	1.0028	+0.28	+0.46
전기동	6,464.00	-0.35	-0.43	AUD/USD	0.7169	+0.63	+0.79
아연	2,873.00	+0.42	-1.95	USD/CAD	1.3322	-0.06	-0.17
옥수수	370.75	+0.61	-0.34	USD/BRL	3.8261	-0.70	-1.17
밀	461.50	-0.54	-2.74	USD/CNH	6.7184	-0.01	+0.06
대두	902.00	+0.36	+0.36	USD/KRW	1138.60	-0.31	+0.38
커피	96.75	+0.68	-1.12	USD/KRW NDF1M	1136.95	-0.27	+0.30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467	-3.39	-5.74	스페인	1.040	-3.20	-9.70
한국	1.867	0.00	-2.00	포르투갈	1.163	-3.10	-10.30
일본	-0.053	-0.50	-0.80	그리스	3.410	-4.10	-23.30
독일	-0.026	-1.60	-3.40	이탈리아	2.409	-1.30	-13.00